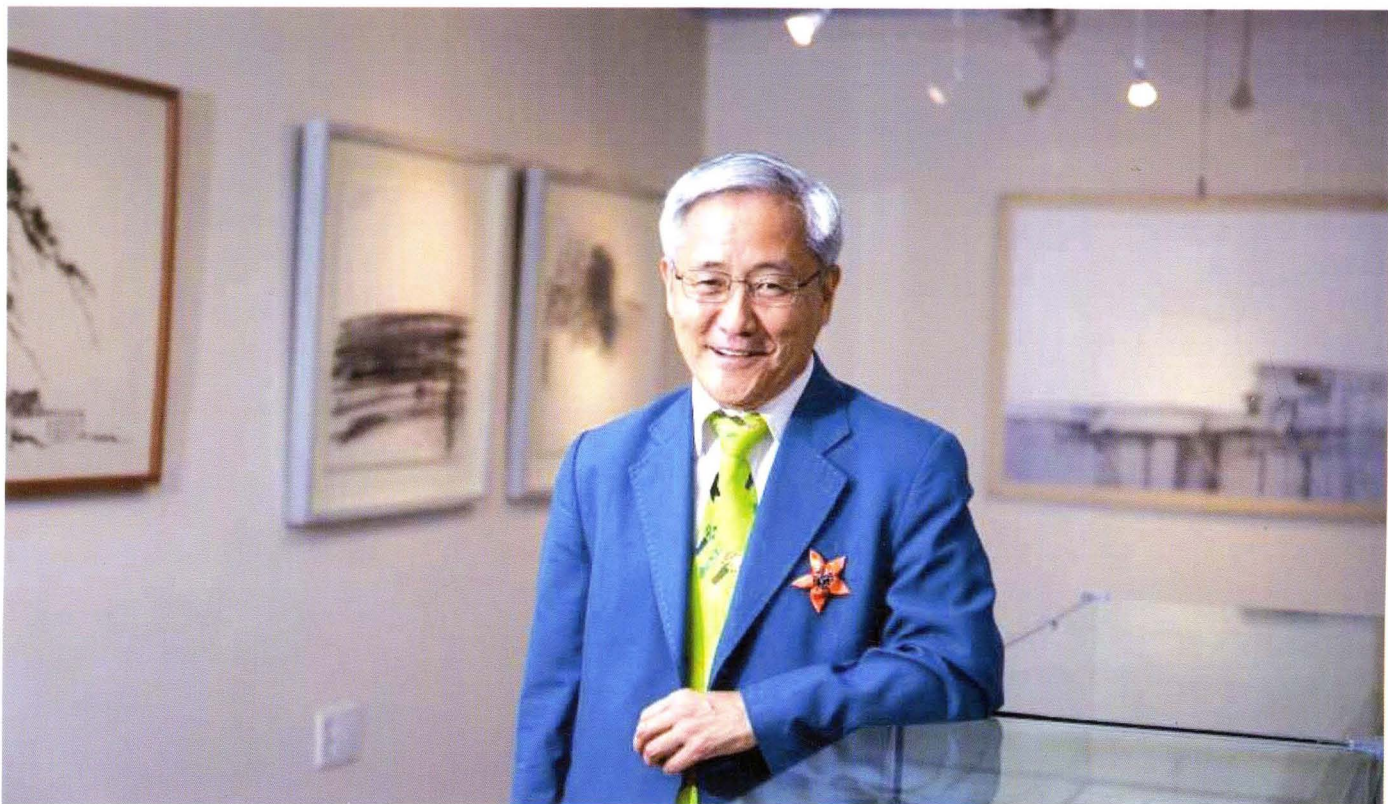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을 운영 중인 김관장이 전시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걸어다니는 미술사전” 한국 현대미술 역사를 보존하다

김달진 미술박물관장

한국의 현대 미술 사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한국 현대미술의 역사를 남기는 데 능통한 김달진 관장. 그는 현재 김달진 미술자료 박물관과 김달진 미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의 박물관에서는 작가화집, 정기간행물, 논문, 작가 개인 파일, 한국 역대 미술 교과서 등 다양한 종류의 한국 현대 미술 사료들을 만나볼 수 있다. 그가 모은 소장품의 수는 2만여 점으로, 국내 유일한 현대미술 자료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걸어 다니는 미술사전’으로 불리기도 한다.

김 관장은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를 모으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고 한다. 껌 종이부터 우표, 담배갑 등 예술적으로 보이는 것이면 무엇이든 모으던 김달진 관장은 중학생 때부터는 신문 속의 서양화들을 오려 모으기 시작했다. 꾸준히 모으던 서양화

들은 어느새 스크랩북 10권 분량이 되었다. 김 관장은 그간 모은 스크랩북을 모두 갖고 국내 미술계 인사들을 만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고작 고등학생인 김 관장을 만나주는 이는 없었다. 그러던 와중 당시 홍익대 교수였던 이경성 교수가 그의 만남 요청을 받아들였다. 김 관장은 그때를 회상하며 “한 줄기 빛과 같은 만남이었다”라고 말했다. 이경성 교수를 만나며 미술계에 첫발을 들여놓은 김달진 관장은 이후 ‘한국 근대미술 60년전(展)’이라는 전시에서 국내 현대미술 자료가 부족함을 느끼고 한국 현대미술의 자료들을 직접 수집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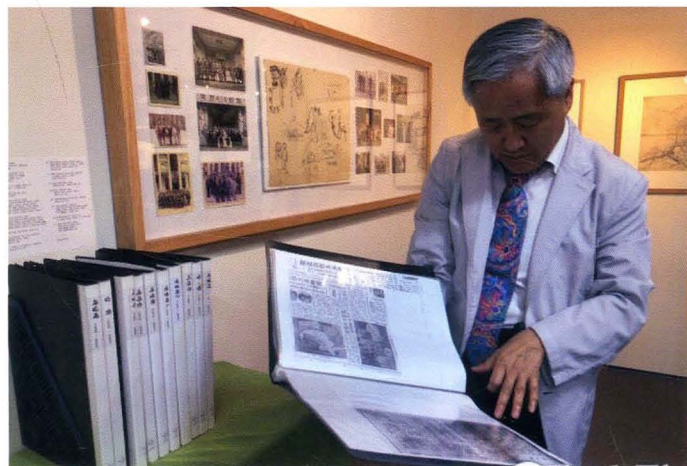
그렇게 한국 현대미술 자료들을 수집하던 김 관장은 월간 전시계 기자, 국립현대미술관, 가나아트센터 자료실장직을 맡으며 계속해서 한국 현대미술의 자료수집가로서 자신의 입지를 넓혀 나갔다.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에서 근무하던 그는 매주 인사동 화랑가나 신문사를 돌면서 당시 미술 전시회와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수집했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은 지난 2001년 그의 이름을 딴 미술연구소를 설립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김달진 미술연구소는 당시 주 3회 무료로 개방됐었고, 이후 이름이 널리 알려져 김달진 미술자료 박물관을 여는 데 밑바탕이 되었다.

그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과정은 기존의 분류 작업과는 매우 다르다. 그만의 특별한 미술 자료 분류법이 있는 것. 이는 학술계에서도 주목을 받아, 2013년에는 그의 박물관에서 자료 수집 방법과 관련된 ‘라키비움’ 강좌를 열기까지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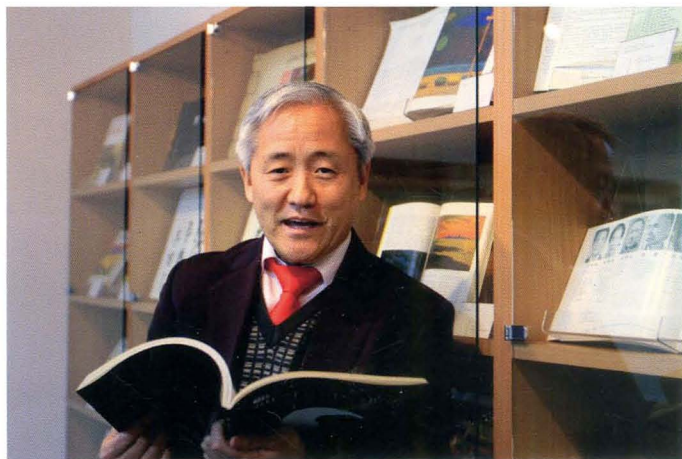
이처럼 김달진 관장이 수집하고 있는 한국 현대 미술의 자료들은 국내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공공 지원의 부족으로 자료 수집, 박물관 운영 등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김 관장은 밝혔다. 수집과 운영에 있어 그가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은 것은 바로 ‘공간 부족’이다. 계속되는 수집으로 자료는 늘어만 가는데, 그것을 보관할 장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이에 김 관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공간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 현대미술의 역사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조아라 기자>



수많은 미술자료들을 수집해 온 김달진 관장



박물관 내 자료를 설명하고 있는 김달진 관장



‘걸어 다니는 미술사전’ 김달진 관장